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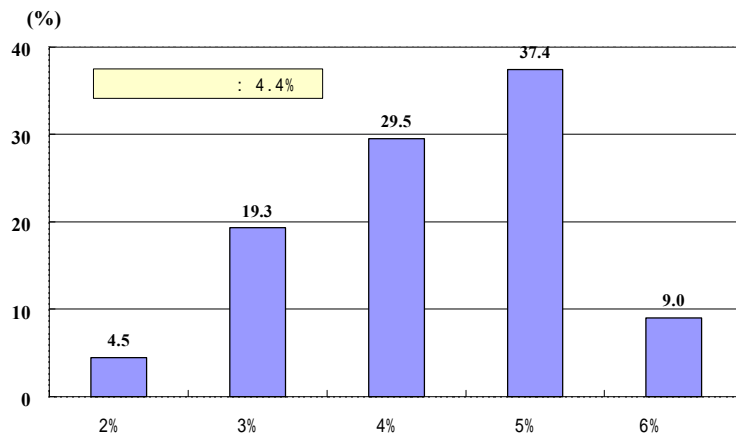
<설문조사> 2000년 한국 경제 전망

< 설문조사 개요 >

- 조사 대상 : 연구소(29), 학계(20), 관계(24), 기업인(15) 총 88인
- 조사 기간 : 1999년 4월 28일(수) ~ 5월 3일(월)
- 조사 방법 : FAX 조사

■ 경제성장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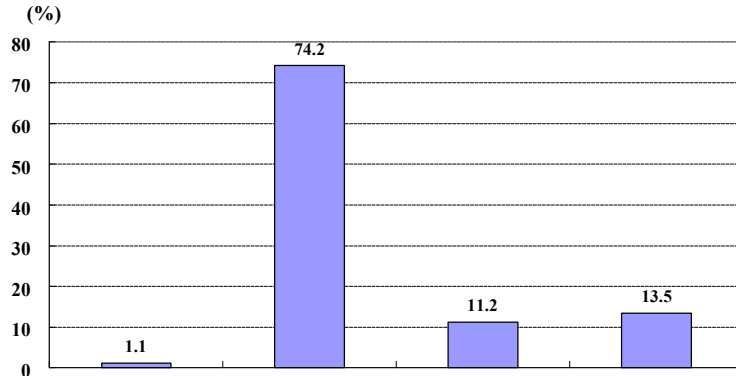
2000년의 경제성장률은 4~5%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. 2~3% 대의 저성장이나 6% 대 이상의 고성장을 전망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(각각 23.8%, 9.0%). 2000년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체 응답자들의 평균치는 4.4%였다. 경제전문가들은 2000년에도 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되어 99년보다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.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으로 복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.



■ 경상수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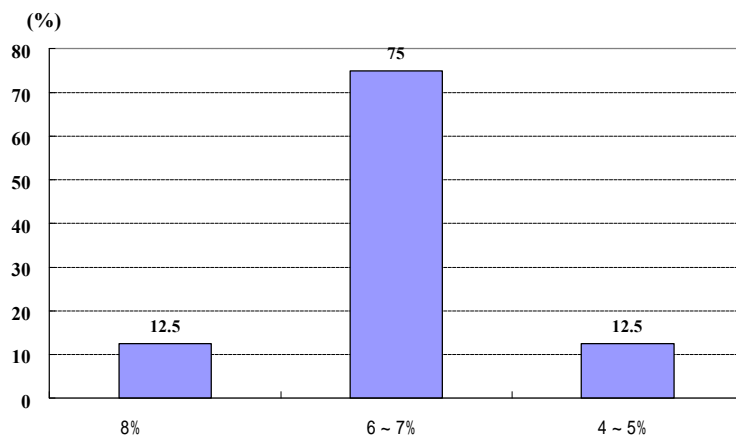
외환위기의 완전한 극복과 외채의 조기 상환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지속시켜가는 것이 중요하다. 그러나 98년과 같은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. 2000년에도 흑자기조는 유지되겠지만 흑자폭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이다(74.2%). 일부에서는 경상수지가 균형을 이루거나(11.2%) 소폭의 적자 기조로 반전될 것(13.5%)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

고 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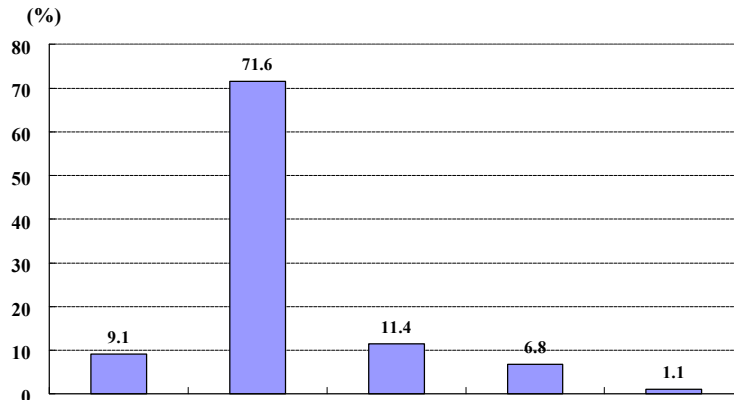
■ 실업률

2000년에 들어서면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현재보다는 실업률이 하락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. 현재와 같은 8% 대의 고실업이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12.5%에 불과하다. 그러나 현재보다 실업률이 크게 하락하여 4~5% 대를 보이게 될 것이라는 응답(12.5%)은 소수에 불과하며, 하락폭이 소폭에 그쳐 6~7% 대에 이를 것이라는 응답(75.0%)이 압도적이다. 따라서 2000년 들어서도 고실업에 따른 사회 불안 우려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, 소비 회복세도 제약될 여지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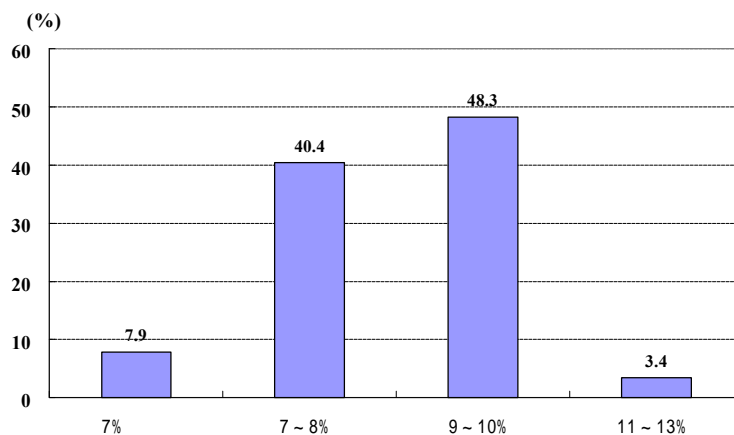
■ 원/달러 환율

현재 1,200원 내외인 원/달러 환율은 향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이었으나(80.7%) 하락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. 현재 수준보다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9.1%에 불과하였으며 71.6%는 소폭 하락에 그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.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(11.4%), 상승할 것(7.9%)이라는 응답은 소수에 불과하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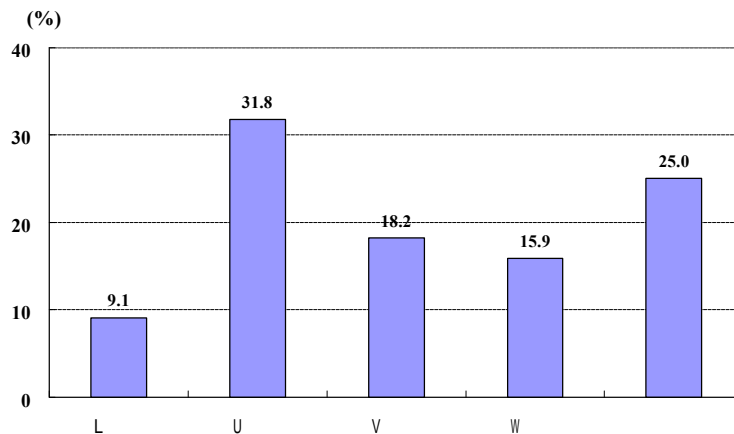
■ 금리

현재 7% 대에 머물고 있는 회사채수익률이 7% 미만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(7.9%). 또 IMF 이전 수준(11~13%)으로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많지 않다(3.4%).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(40.4%), 소폭 상승하여 9~10%대에 머물 것(48.3%)이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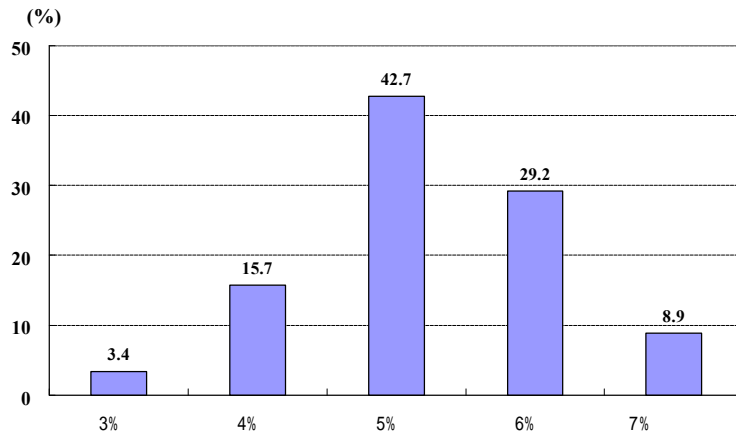
■ 향후 1~2년간의 경기사이클 패턴

향후 1~2년간의 경기가 V자형이나 U자형과 같이 급속히 혹은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. V자형과 U자형 회복 패턴을 보일 것이라는 응답자의 비중은 각각 18.2%, 31.8%로 나타났다. 그런데 √형이나 L자형 혹은 W자형과 같이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상승세를 타지 못하고 정체되거나 재차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라는 응답도 전체의 절반에 달하였다. 특히 향후 경기 회복세가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응답 중에는 현재의 상승세가 다시 위축세로 반전되지는 않더라도 현수준에서 지지부진하게 정체되는 √형을 보이게 될 것이라는 응답(25%)이 다수를 차지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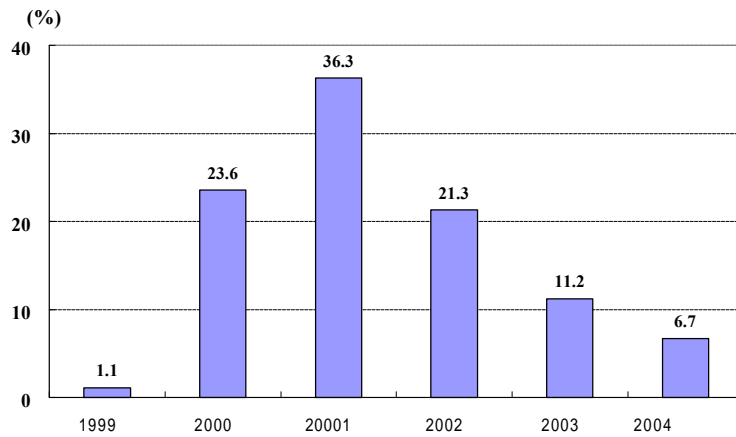


■ 잠재성장률

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 이전의 7% 대 보다 다소 낮아진 5~6% 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. 특히 5% 대를 잠재성장률로 보는 응답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(42.7%). 응답자들의 잠재성장률 평균치는 5.4%였다.



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되는 시점으로 2001년을 거론하는 응답자들이 많았다(36.0%). 2000년이면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응답(23.6%)도 적지 않았던 반면, 2002년 이후에나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실제 성장률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도 39.2%에 달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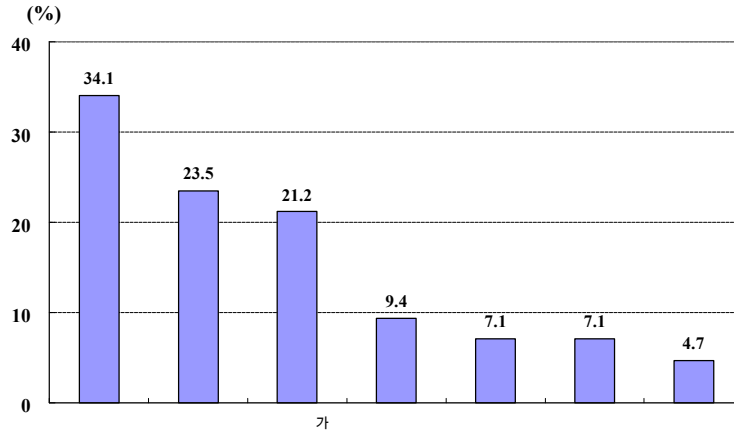


■ 성장 주도 요인 및 제약 요인

- 성장 주도 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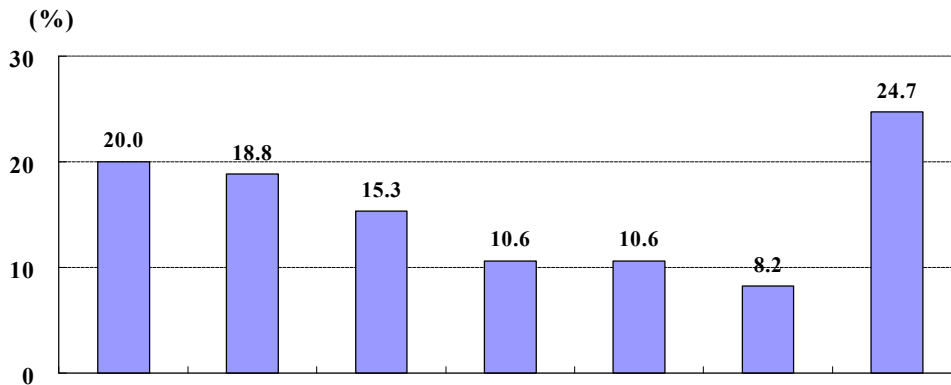
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요인으로는 구조조정에 따른 경제 체질 개선을 거론하는 응답자들이 많았다(34.1%). 그 밖에 수출 증대(23.5%)나 소비 증가

(21.2%)를 거론하는 응답자도 적지 않았다.



- 성장 제약 요인

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는 노사관계의 불안(20.0%)이나 세계경제 침체, 아시아 경제의 회복 지연, 유가 상승 등과 같은 해외여건 악화(18.8%), 정부 규제나 정부 및 공공부문의 비효율, 관리들의 부패(15.3%) 등을 지적하는 응답자들이 많았다. 후진적인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응답도 10.6%에 달하였다.



<설문지>

■ 2000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---()%

■ 2000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?---()

- ①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할 것이다.
- ②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유지되지만, 흑자 폭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.
- ③ 경상수지가 균형을 이룰 것이다.
- ④ 소폭의 적자 기조로 반전될 것이다.
- ⑤ IMF 이전과 같은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 기조로 반전될 것이다.

■ 2000년 실업률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?----- ()

(참고: 99년 3월 실업률 8.1%)

- ① 현재의 8%대의 고실업 수준이 지속될 것이다
- ② 현재 수준보다 다소 하락하여 6~7%대를 나타낼 것이다
- ③ 현재 수준보다 크게 하락하여 4~5%대를 나타낼 것이다.
- ④ IMF 이전 수준인 2~3%대로 복귀할 것이다.

■ 2000년 원/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?----- ()

(참고 : 1999년 4월 27일 현재 달러당 1,186원)

- ① 현재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.(1,200원 전후)
- ② 현재 수준보다 소폭 하락(달러당 1,000~1,100원)할 것이다.
- ③ 현재 수준보다 크게 하락(달러당 1,000원 미만)할 것이다.
- ④ 현재 수준보다 소폭 상승(달러당 1,200~1,300원)할 것이다.
- ⑤ 현재 수준보다 크게 상승(달러당 1,400원 이상)할 것이다.

■ 2000년 금리 수준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?----- ()

(참고 : 1999년 4월 26일 현재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 7.35%)

- ① 현재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.(7~8%)
- ② 현재 수준보다 하락(7% 미만)할 것이다.
- ③ 현재 수준보다 소폭 상승(9~10%)할 것이다.
- ④ IMF 이전 수준까지 상승(11~13%)할 것이다.